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채널 구독하기

Weekly 제112호

2024.07.04.(목)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 중국·히토류** 中, 히토류 관리·감독 강화...오는 10월부터 조례 시행
- 호주·이차전지** 이차전지 시장 침체로 호주 內 최대 규모 광산 8곳 폐쇄 위기
- EU·철강** EU, 철강 수입 세이프가드 조치 2년 연장 확정...’26.6월까지 시행
- 한국·통상** 韓·美, 2차 공급망·산업대화 개최...협력 심화방안 논의

주간 이슈 포커스

- EU·통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운영 관련 업계 건의 사항

원자재 뉴스 PLUS

- 에너지** 오만, 對韓 나프타 수출 증가 전망

II. 월간 공급망



소재·부품·장비 품목 심층분석 - 반도체용 이온주입기

I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공급망 분석을 통해 살펴본 韓·中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중국, 희토류 中, 희토류 관리·감독 강화...오는 10월부터 조례 시행

6.29일(현지시간) 中 국무원은 희토류* 채굴·제련·추출·유통·수출입 분야의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이 명시된 32개 조항을 발표

* 중국의 희토류 생산량은 세계 희토류 시장의 70%를 차지하며, 가공·정제 산업 포함 시 90%에 육박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

- ▶ 희토류 개발·활용 외에도 자원 보호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희토류 산업 고품질 발전 촉진 및 신기술·신소재·신장비 연구개발 장려 등의 내용을 포함
- ▶ 4년 전 작성된 초안 대비 당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희토류 외 다른 희귀 금속에 대해 금번 조례를 참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규 반영
- ▶ 동 조례는 '24.10.1일부 시행될 예정이며, 관련 사항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

핵심 키워드

희토류

자원안보

출처: 中 국무원('24.06.29) 등 언론보도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호주, 이차전지 이차전지 시장 침체로 호주 內 최대 규모 광산 8곳 폐쇄 위기

최근 이차전지 관련 광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로 생산을 중단하거나 종단을 논의 중인 호주 內 광산 증가

- ▶ 생산 광물 별로 ▲니켈·스포르듀만·리튬 광산 각 2곳, ▲구리·망간 광산 각 1곳 등이며 이 외에도 '24.1월 리튬과 니켈을 생산하는 2개 광산이 운영을 중단

이차전지 광물 생산업체는 예상보다 부진한 전기차 판매로 연간 1억 호주달러(약 912억 원) 이상의 손실이 전망된다고 보고

- ▶ 추후 더 많은 광산이 폐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광산 기업의 생산량 변화에 따른 모니터링 및 대처 방안 수립 필요

핵심 키워드

호주 광산

전기차

출처: KOTRA 시드니무역관 종합

EU, 철강 EU, 철강 수입 세이프가드 조치 2년 연장 확정... '26.6월까지 시행

6.25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6월 말 만료 예정이었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2년 연장하는 시행령을 관보에 게재

*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열연강판·냉연강판·전기강판 등 총 26개 품목에 대해 쿼터 內 수입 물량은 무관세로 수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 쿼터 방식의 조치

- 동 조치는 ▲무관세 확대 비율 감축, ▲분기 국별 최대 쿼터 상한선(15%) 설정, ▲일부 국별 규제 품목 조정 등을 포함
- 세이프가드 조치는 최대 8년까지 부과가 가능하여 금번이 마지막 연장 조치로, '18년 이후 지속된 국내 철강 업계 EU 수출량 제한도 '26.6월까지 이어질 전망

핵심 키워드

철강

세이프가드

출처: EU 경제통상 브리핑 제24-37호('24.06.26)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한국, 통상 韓·美, 2차 공급망 산업대화 개최...협력 심화방안 논의

6.27일(현지시간) 산업부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2차 韓·美 공급망·산업대화(SCCD*)에서 양국 경제 및 산업 협력 심화 방안 논의

* 공급망·산업대화(Supply Chain Commercial Dialogue, SCCD): '22.5월 설치 합의된 첨단산업 및 공급망 협력채널

- 양국은 ▲반도체·첨단제조·핵심광물 등 첨단산업·공급망 회복력, ▲수출통제, ▲디지털 경제, ▲헬스케어 등 분과별 협력 성과 점검

이와 더불어 양국은 '韓·美 공급망·산업대화 반도체 포럼'을 개최하고 美 4개 대학*에 '韓·美 산업 기술 협력센터' 개소 발표

* 예일대학교, 존스홉킨스대학교, 조지아 공과대학교, 퍼듀대학교 등

- 신설된 센터를 통해 韓 기업-美 대학 간 연구개발 기획 등 양국 공동 연구개발 확대 및 청년 인력 교류 계획

핵심 키워드

반도체 공급망

SCCD

출처: 산업부 보도자료('24.06.28)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주간 이슈 포커스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EU, 통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운영 관련 업계 건의 사항

☐ '23.10월 발효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현재 전환 기간 적용 중으로, 적용 대상 기업에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으나, 제도상 문제 제기 지속

*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가 간 감축 노력의 차이를 보정하는 무역 제한 조치로, 수출품 제조 과정에서 EU 기준을 초과하는 탄소 배출량에 대해 탄소 배출권 구매 및 제출을 의무화

➡ CBAM 전환기에도 운영상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제상공회의소(ICC)는 EU 집행위 조세총국에 서한을 통해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해결을 촉구

국제상공회의소(ICC) 서한 내용

기업 애로	세부 내용
① CBAM 보고 플랫폼 접근성	- 회원국별 보고 플랫폼이 상이하여 기업이 탐색하기 어려움 - 접속 후에도 기술적 문제(직접 배출 관련 상품 코드 검증 오류 등) 발생
② CBAM 보고서 제출 관련 문제	- 보고 내용이 정확한지 증명하는 서명인(signatory)을 대신하여 신고인(declarant)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부재 - 플랫폼 지원 언어의 다양성 부족
③ 높은 관리 비용	보고서 제출 의무 미소기준(de minimis, €150)이 낮아 나사·볼트 등 소량 거래도 CBAM 적용 범위에 포함되어 소규모 기업 부담 가중
④ 필수 데이터 수집 및 배출량 계산 문제	- 기업별 다른 방법론으로 탄소 배출량을 모니터링·계산하고 있으나 이는 '24년까지만 유효 - EU·해외 파트너 국가와 협력하여 사용자 친화적 방법 지원 필요
⑤ 공급망 전반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 EU 역외 공급업체 다수가 중요한 정보 제공을 꺼리고 있어 공급망 전반 데이터 확보에 현실적 어려움 수반 - 특히 비유럽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목적으로만 등록된 유럽 국가에서 수행하는 수입 활동 범위를 식별하는 데 애로사항 존재
⑥ 기업 기밀 정보 노출	수입자 수집 관련 정보는 제품·생산 과정 및 공급망 관련 기업 정보 노출

집행위 향후 일정

- ☐ 집행위에 따르면, '24.3분기 신고인 승인 관련 위임법과 CBAM 등록부 관련 기술조항 위임법 마련 예정
- ☐ '24년 말까지 자동차 등 다운스트림 제품으로 CBAM 적용 제품군 확장 여부 검토 보고서 발표 계획
- ☐ '25년 하반기, 적용 대상 품목에서 전기 제외 여부 확정 및 최저개발국(LDCs) 산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 예정

핵심 키워드

CBAM

국제상공회의소

출처: Euractive('24.06.24), EU 경제통상 브리핑 제24-38호('24.06.28)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에너지 오만, 對韓 나프타 수출 증가 전망

- 기존 주요 나프타 공급처인 이란·러시아産 수입 제재 및 오만 두쿰(Duqm) 정유시설 운영으로 주요 수입품목인 나프타 수입원이 다변화될 전망
- 오만의 對韓 나프타 수출은 '20년 17백만 달러에서 '24.5월 기준 657백만 달러로 크게 증가
- '21년까지 러시아가 수입대상국 1위였으나 '24.5월 기준 UAE·알제리·오만 등 MENA 지역의 수입이 韓 전체 나프타 수입의 65% 차지 출처: KOTRA 무스카트 무역관 종합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6월 4주)

비철금속 | 주요 대형광산 가동 가능성으로 동 가격↓, 中 철강산업 규제 강화로 니켈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1~6월	전년비(%)	6.3주	6.4주	전주비(%)
동	8,478	9,097	7.3	9,553	9,468	△0.9
니켈	21,474	17,506	△18.5	17,034	16,903	△0.8
아연	2,647	2,641	△0.2	2,781	2,853	2.6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동) 주요 대형광산 및 Freeport-McMoran社의 신규 제련소 가동 가능성으로 가격 하방압력 발생
- (니켈) 中 철강산업 규제강화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로 니켈 가격 하방압력 발생했으나, 中 니켈 수입 확대 및 메이저 광산의 생산 실적 부진으로 상기 하방압력 부분 상쇄

철강 | 계절성 수요둔화 및 재고량 증가로 철광석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1~6월	전년비(%)	6.3주	6.4주	전주비(%)
연료탄	173.32	131.96	△23.9	134.73	132.93	△1.3
원료탄	295.71	276.14	△6.6	251.50	237.60	△5.5
철광석	119.32	118.42	△0.8	106.76	104.84	△1.8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 분광)

- (철광석) 中 폭염에 따른 건설 부문 비수기 진입으로, 철강재 수요둔화에 따른 가격 하락세 시현
- (유연탄) 中 경기부진에 따른 유연탄 가격 하락세 유지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6월 4주)

희소금속 | 이차전지 부문 수요 감소로 탄산리튬 가격↓, 시장 공급 과잉으로 코발트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1~6월	전년비(%)	6.3주	6.4주	전주비(%)
페로망간	1,266	1,161	△8.2	1,410	1,410	—
탄산리튬	35,697	14,506	△59.4	13,127	12,552	△4.4
수산화리튬	37,972	13,091	△65.5	12,083	11,660	△3.5
코발트 (U\$/lb)	17.82	16.96	△4.8	16.55	16.55	—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330,258	276,556	△16.3	258,700	252,300	△2.5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78,383	54,798	△30.1	51,280	51,000	△0.6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 ❏ (탄산리튬) 이차전지 부문의 수요 감소가 단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주 대비 가격 하락
- ❏ (코발트) 中 코발트 금속가는 시장 공급과잉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주 대비 가격 하락
- ❏ (희토류) 산화 디스프로슘은 수요업체가 지속적인 가격 하락을 예상하며 수요를 줄여 전주 대비 가격 하락

에너지 | 계절성 수요 증가 기대 및 후티 반군 선박 공격 지속 등으로 유가 상승세

품목	연평균 (U\$/bbl)			주간평균 (U\$/bbl)		
	'23년	'24년	전년비(U\$/bbl)	6.3주	6.4주	전주비(U\$/bbl)
두바이유	82.10	83.32	1.22	84.26	84.81	0.55
브렌트유	82.17	83.46	1.30	85.12	85.67	0.55
WTI	77.60	78.88	1.28	81.20	81.28	0.08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 ❏ (원유) ▲후티 반군 선박 공격 지속, ▲美 여름철 여행 수요 증가 기대 등으로 유가 상승압력 발생했으나, 석유 재고 증가 등은 유가 상승폭 제한
 - 🔍 美 자동차협회(AAA)는 독립기념일 연휴(6.29일~7.7일) 美 여행객을 7,090만 명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수치
 - 🔍 6.21일(현지시간) 美 상업 원유 재고는 4억 6,070만 배럴로 전주 대비 359.1만 배럴 증가해 美 에너지 정보청(EIA)이 전망한 시장 예상치 상회

월간 공급망

◆ 소재·부품·장비 품목 심층분석 - 반도체용 이온주입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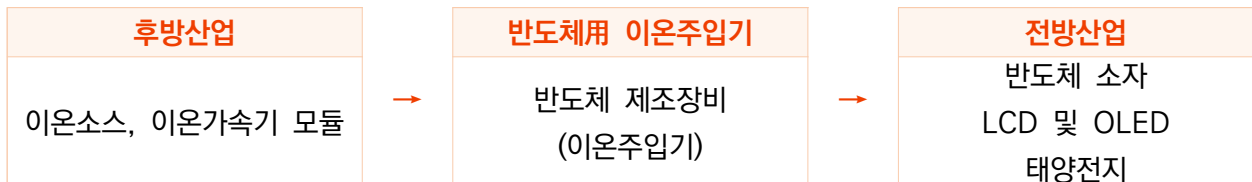
작성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이온주입기 품목 개요

- ▶ 반도체용 이온주입기는 반도체 제조공정 중 웨이퍼 또는 기판에 반도체 특성을 부여해주는 특정 불순물(이온)을 가스 형태로 주입하여 전기적 성질을 부여하는 장비
- ▶ 고온 이온주입 기술은 저결함 고활성화도 특성 확보가 가능하여 다양한 전력 소자 응용 분야에 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계 및 회로기판 생산을 위한 IT산업용 강철을 강화하는 용도로도 활용됨
- ▶ 최근 반도체 초미세 공정과 전력반도체의 시장 확대 등으로 이온주입 장비 및 핵심부품의 시장 확대가 전라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반도체용 이온주입기 가치사슬

[표 1] 반도체용 이온주입기 가치사슬



☐ 반도체용 이온주입기 산업 동향

- ▶ 이온주입 장비 산업은 기술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제품의 사이클의 긴 편이며, 부품소재 산업과 전방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경기에 크게 영향받는 편
- ▶ 전기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이 커지면서 에너지 변환효율이 우수한 차세대 전력용 반도체 산업이 주목받고 있음. SiC 전력반도체 시장의 성장으로 이온주입 공정 시장의 전체 시장 규모가 증가
- ▶ 이온주입 공정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이나, 반도체용 이온주입기는 미국이 쏙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

☐ 국내 수출액 추이 ('19~'23년)

- ▶ '23년 이온주입기의 수출액은 187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71.6% 증가

[표 2] 수출액 변화 추이(최근 5년)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금액(천 달러)	17,741	21,196	71,696	108,961	186,930

□ 국내 수입액 추이 ('19~'23년)

- ▶ '23년 이온주입기의 수입액은 353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대비 △6.8% 감소

[표 3] 수입액 변화 추이(최근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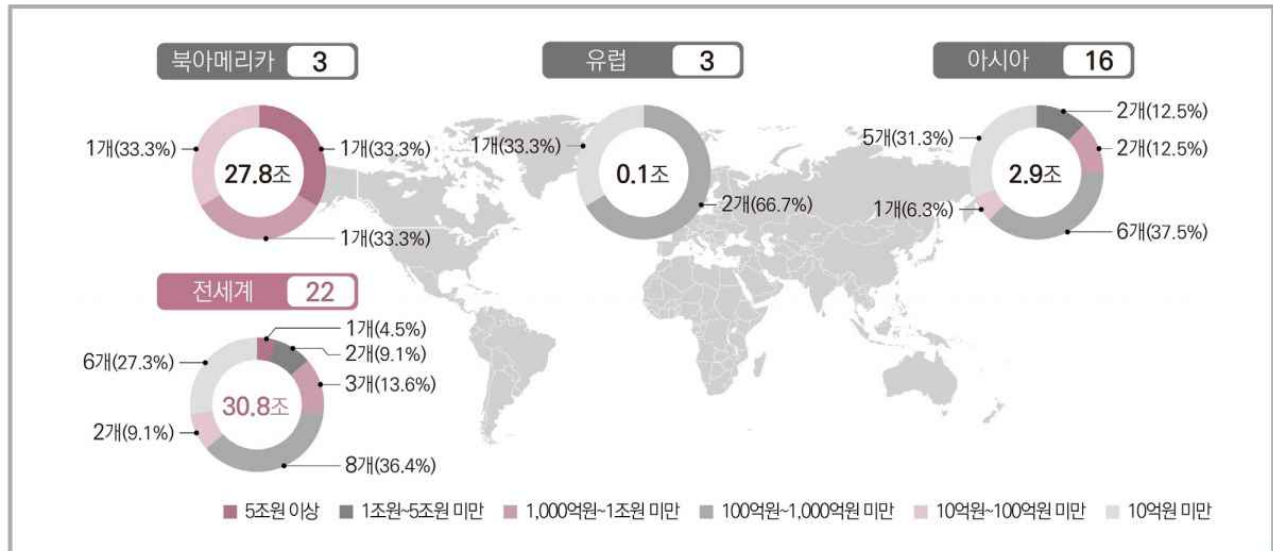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금액(천 달러)	172,651	266,427	383,229	379,244	353,356

□ 반도체용 이온주입기 기업 동향

	국내	국외
기업명	A사	(美) APPLIED MATERIALS INC
	B사	(日) NISSIN ELECTRIC CO LTD
	(부품)C사	(美) AXCELIS TECHNOLOGIES INC

- ▶ 주요 제조사는 미국의 Applied Materials, Axcelis Technologies 등이 있으며, 이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약 90%
- ▶ (美) Axcelis Technologies는 이온주입 시스템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세계 32개국에 20억 달러 규모의 이온주입기를 공급 중. 국내에서는 2,100만 달러를 투자하여 평택시에 생산공장을 완공·운영 중
- ▶ (美) Applied Materials (AMAT)는 박막증착 공정 관련 소 세계 반도체 장비 업계의 최대 기업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태양광 산업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확보 중. AMAT의 새로운 임플란트 기술은 격자 구조에 손상을 최소화해 이온을 주입해 실온에서의 임플란트에 비해 저항을 1/40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
- ▶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사용되는 이온 임플란터는 日 장비업체인 닛신-이온(Nission Ion)이 독점공급
- ▶ A사는 GaN 반도체, SiC 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하여 美 엑셀리스 본사에 이온 임플란트 장비 신규 발주
- ▶ B사는 이온주입기에 사용되는 가스 소재인 임플란트용 가스인 BCl₃, PH₃ 등을 제조하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삼성디스플레이, 동우화인켐 등 디스플레이·LED 제조사에 제품 공급 중
- ▶ C사는 열확산 및 어닐링 장비에 사용되는 쿼츠 튜브를 주로 생산하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실트론, DB하이텍 등에 장비를 공급 중

[표 4] 반도체용 이온주입기 주요 생산기업 현황



*출처: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23 GVC 산업분석 보고서

반도체용 이온주입기 기술 동향

- 고성능, 저전력, 고집적 반도체 소자 제작을 위해 미세화 공정 기술의 개발 및 플라즈마 도핑, 레이저 어닐링 기술 등과 같은 이온주입 확산 공정을 위한 고성능 장비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 기존 어닐링은 배치식 열처리와 RTA 방식이 있으나, 열에 의한 불량(고온 노출 시간 및 슬립 현상)으로 최근에는 soak time을 줄이기 위한 Millisecond RTA, 레이저 어닐링, 고압 수소 등의 방식 등장
- 차세대 열처리 기술로는 Flash RTP(Rapid Thermal Processing)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기존 RTP 장비에 비해 고속가열/냉각이 가능하여 보다 높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 동안 열처리 가능
- KAIST와 한양대는 뉴로모픽 컴퓨팅 기술에서 단위 소자인 멤리스터의 불규칙한 소자 특성을 개선할 수 있는 '이종원자가 이온 도핑' 방법을 개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6월호를 통해 발표
- 한국전기연구원(KERI)는 헝가리 소재의 반도체 측정장비 전문업체인 세미랩(주)에 SiC 전력반도체 이온 주입 평가기술을 기술이전, 이를 통해 이온주입 공정 평가 장비 개발로 고성능 SiC 전력반도체의 양산화 기여 목표

출처 및 참고자료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23 GVC 산업분석 보고서 및 GIVC 시스템
- 한국무역협회 K-STAT, 국내 품목 수출입 현황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국산화 전략품목 상세분석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2024~2026
- 언론보도 및 기업 홈페이지 정보

공급망 더 알아보기

공급망 분석을 통해 살펴본 韓·中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작성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지난 20여 년간 한국의 제1교역국으로써 지위가 공고했던 중국과의 무역구조가 변화를 맞고 있다. 한·중 무역 구조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것일까?

1. 한·중 무역구조 변화

☐ (중국) 자급률 제고와 기술 수준 향상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로부터의 중간재·최종재 수입 비중은 감소, 대한국 수출은 원자재가공품을 중심으로 성장

➡ (GVC) 세계무역에서 중국의 역할은 외국산 중간재 단순가공에서 자체 중간재 생산 및 수출로 변화하였음

- 중국은 과거 중간재를 수입하여 단순 조립·가공하는 제조공장이었으나, 자급률 향상으로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낮아져 후방참여율*이 하락

* 후방참여율: 총수출에서 해외 중간재를 이용해 수출품을 생산하는 비중

- 중국의 고부가가치 산업이 성장하고, 해외에서 중국산 중간재 수요가 많아지면서 전방참여율*이 상승

* 전방참여율: 총수출에서 자국 수출품이 외국의 제3국 수출품 생산에 중간재로 활용되는 비중

➡ (수입) 중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은 하락세이며, 대한국 수입 증가세 역시 둔화되는 양상을 보임

➡ (수출) 중국은 중간재 제조 역량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산업에 진입하면서 대세계 고위기술 중간재 수출이 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대한국 수출은 대세계 수출과는 달리 원자재가공품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임

☐ (한국) 대중국 수입은 원자재가공품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대중국 수출의 주력 품목 집중 현상이 강화됨

➡ (GVC) 최근 5년간 우리 수출 산업구조는 수입 중간재 의존도가 상승

▶ 우리나라의 후방참여율은 '20년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급격한 상승세로 전환

▶ 반면 해외로의 우리 중간재 공급은 '18년 고점을 기록한 후 점진적인 둔화세를 보이며 전방참여율이 소폭 하락

➡ (수입) '17~'23년 이차전지 소재 관련 원자재가공품(전구체, 수산화리튬, 양극재 및 양극활물질)의 대중국 수입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임

➡ (수출) 대중국 수출의 중간재 집중이 심화되는 가운데, 석유화학·이차전지 관련 원자재가공품과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등 고위기술 품목으로 주력 품목의 양분화가 나타남

2. 우리 기업의 한·중 무역구조 변화 대응

□ 우리나라 핵심 제조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기업 단위 공급망 의존을 살펴본 결과, 우리 기업의 대중국 공급망 의존도는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⑤ (해외 공급업체 노출도) 산업별로 우리 기업의 해외 공급업체 노출도는 상이하며, 상대적으로 반도체는 해외 의존형, 자동차는 자립형 공급망을 갖춘 것으로 나타남
- ⑤ (중국 의존도) 주요 기업의 중국 내 생산시설 비중(15~20%), 공급처의 중국 내 생산설비 비중(12~20%), 본사가 중국에 소재한 공급업체의 비중(최대 16%)이 높게 나타남

□ 다만 우리 기업은 공급업체 다변화, 대중국 투자 회수 및 신규 투자 감소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과정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 ⑤ 국내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주요 기업은 '20년 이후 글로벌 공급업체 수를 10% 이상 확대하였음

▶ 주요 기업의 국내외 공급업체(suppliers) 수 추이('20~'23)

(단위: 개사, 증가율%)

기업명	산업	'20년 말	'21년 말	'22년 말	'23년 말	'20→'23 증가율
A社	반도체	863	949	1,033	1,000	15.9
B社	반도체	198	211	213	193	-2.5
C社	자동차	525	536	567	551	5.0
D社	자동차	296	322	343	342	15.5
E社	이차전지	-	26	76	95	265.4
F社	이차전지	115	125	127	137	19.1

주1: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3개 산업별 주요 한국 기업 2개사 / 주2: E社は 2020년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21→'23년 공급업체 증가율로 계산
자료: Bloomberg SPLC ('23.12.27. 조회 기준)

- ⑤ '23년 1~9월 對중국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하였으며, '21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 회수금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의 국가별 해외직접투자액(억 달러, '22.1~9월→'23.1~9월): (중국) 80.5→11.8, (미국) 75.2→74.9

** 한국의 연도별 대중국 투자 회수금액(백만 달러): ('20)563 → ('21)2,580 → ('22)1,179 → ('23)621

3. 시사점

□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비관세장벽 활성화 등 한·중간 교역, 더 나아가 우리 산업기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가 상시화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대응이 필요

- ⑤ 장기적인 대중국 수출기반 강화를 위해 대중 주력 수출품목을 다변화하고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를 목표해야 함
- ⑤ 원자재·가공품 대중국 수입 의존도 완화를 위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의 다자협약체제에 적극 참여하고, 친환경적 가공·제련 기술 국산화를 위한 중장기적 지원책이 병행될 필요

출처: 「공급망 분석을 통해 살펴본 한·중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24.6.10)

글로벌 경제지표 ['24.7.2일 (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 환율

구 분	'22년	'23년	'24.2월	6/28	7/1	7/2	전일비	전년말비
₩/U\$	1,264.50	1,288.00	1,331.50	1,376.70	1,379.30	1,388.20	0.65%	7.78%
선물환(NDF, 1월물)	1,265.30	1,286.80	1,329.30	1,383.50	1,376.90	1,383.40	0.47%	7.51%
₩/CNY	181.44	181.37	185.10	190.43	190.15	190.95	0.42%	5.28%
₩/¥100	945.56	912.25	888.91	855.62	856.92	858.61	0.20%	△5.88%
¥/U\$	133.73	141.19	149.79	160.90	160.96	161.68	0.45%	14.51%
U\$/EUR€	1.0617	1.1105	1.0835	1.0694	1.0774	1.0732	△0.39%	△3.36%
CNY/U\$	6.9630	7.1092	7.1938	7.2655	7.2669	7.2712	0.06%	2.28%

* '23년 평균 환율: (₩/U\$) 1305.9원, (₩/¥100) 931.6원 / '24년 평균 환율('24.1.1일~현재): (₩/U\$) 1350.7원, (₩/¥100) 887.8원

□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3년 최저(해당일)	12/29('23년)	7/1	7/2	전일비	'23년 최저비	전년말비
원유(두바이)		70.31(3.20일)	77.08	85.65	87.08	1.4	16.8	10.0
						1.7%	23.9%	13.0%
철광석		97.35(5.24일)	140.50	110.05	110.55	0.5	13.2	△30.0
						0.5%	13.6%	△21.3%
비철 금속	구리	7,812.50(10.5일)	8,476.00	9,517.00	9,546.00	29.0	1733.5	1070.0
						0.3%	22.2%	12.6%
	알루미늄	2,068.50(8.21일)	2,335.50	2,496.50	2,489.50	△7.0	421.0%	154.0%
						△0.3%	20.4%	6.6%
	니켈	15,885.00(11.27일)	16,300.00	17,220.00	17,185.00	△35.0	1300.0	885.0
						△0.2%	8.2%	5.4%

□ 반도체

구 분	'21년	'22년	'23.12월	'24.1월	'24.2월	6/27	6/28	7/1	7월(~1)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99	3.07	1.74	1.86	1.95	1.89	1.89	1.89	1.89
(%, YoY)	29.9%	△23.0%	△14.8%	△3.6%	6.6%	25.4%	25.7%	26.0%	27.0%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55	7.25	6.38	6.38	6.42	6.35	6.35	6.34	6.34
(%, YoY)	14.7%	10.7%	△2.3%	△1.9%	△0.7%	0.9%	0.8%	0.7%	0.6%

□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12/30('22년)	12/29('23년)	6/14	6/21	6/28	전주비(6/21)	전년말비
SCFI	1107.55	1759.57	3379.22	3475.6	3714.32	6.9%	111.1%

□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12/23('22년)	12/22('23년)	1/1	6/26	6/27	6/28	7/1	전주비(6/28)	전년말비
BDI	1515	2094	1308	1964	2031	2050	2158	5.3%	3.1%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gvc_monitoring@kotra.or.kr
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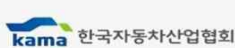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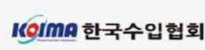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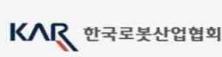


카카오톡 채널 구독

주관기관



협력기관



본지의 내용은 산업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